

부산상공회의

Story for 부산CEO

Show



2022 December
Vol. 609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EO 취향저격
여행지 추천
CEO의 단골 맛집

ZOOM in BCCI
Story of 캡틴 장
Look at Me

Contents



발행일 2022년 12월 1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활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디자인·제작 (주)프린테크 051-301-3113
 표지디자인 메이플디자인 051-257-0302

부산상공회의소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CEO 취향저격

04

여행지 추천
 연말 분위기를 흥겹게 느낄 수 있는
 여행지 및 해돋이 명소 추천



08

골프에 반하다
 라오스 골프여행
 골프 열풍의 역설



12

영화 돋보기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게 해줄 영화 추천
 <코다>



14

CEO의 단골 맛집
 한우와 한돈 모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육화목(肉火木)'



16

가객의 인문학
 애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ZOOM in BCCI

18

사진으로 보는 부산상공회의소 2022년

20

부산상공회의소 2023년도 사업 계획

24

제40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



26

STORY OF 캡틴장



28

Together with 2030
 국제박람회기구(BIE) 디미트리 케르켄테츠
 사무총장 초청 환영 오찬 개최



30

기업포커스
 (주)천우테크



34

Look at Me
 스타트업 '주서르'



트렌드 TALK

38

Do You Know MZ?
 '조용한 사직' 챌린지

경제 KEYWORD

40

청년이 살고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자

42

보보와 함께 알아보는
 레고랜드 사태가 불러온 기업의 돈맥경화



44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46

부산경제계 이모저모

50

멤버스 라운지
 부산상공회의소 각종 교육 안내

52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 경제인 과정 모집



연말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여행지 및 해돋이 명소 추천

글·사진_ 문철진 여행작가



2022년도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올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새해가 다가오는 만큼 해돋이를 즐길 수 있는 일출 명소 두 곳과

연말 분위기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야경 명소 두 곳을 소개한다.

12월이라 더 특별한 그곳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자.

1

부산 죽성드림세트장

부산 죽성드림세트장은 2009년에 방송됐던 드라마 ‘드림’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기장군 죽성리에 위치해 ‘죽성성당’으로도 불린다. 드라마가 끝난 지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비록 드라마 세트장이지만 동해를 배경으로 서 있는 성당의 모습이 워낙 이국적이고 아름다워서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세월의 흔적이 제법 느껴지던 성당은 최근 조명과 함께 새 단장을 마쳐 더욱 근사해졌다. 덕분에 수많은 인스타그램러들이 찾는 인생샷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한적한 어촌마을 해안가 절벽에 세워진 성당은 그 자체로도 멋진 피사체다. 하지만 압권은 역시 해가 뜨는 아침 풍경이다. 로맨틱한 성당 뒤로 붉은 태양이 불쑥 솟아오르는 모습은 흡사 멜로 영화의 한 장면 같다. 해가 뜨면 세상은 온통 오렌지빛으로 물든다. 거센 파도를 온몸으로 견디며 도도하게 서 있는 황금빛 성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1, 2_ 부산 죽성드림세트장



2



1, 2_ 경주 문무대왕릉

경주 문무대왕릉

경주에 바다가 있다고 하면 다들 놀란다. 위로는 감포 해변, 아래로는 읍천항까지 경주의 옆구리를 온통 동해가 차지하고 있다. 경주를 품은 동해는 겨울이 제철이다. 우레와 같은 소리를 몰고 해변으로 쏟아지는 거대한 파도는 겨울 경주 바다의 백미다. 썰 새 없이 부서지는 하얀 포말과 파도의 거친 숨소리는 흑한도 잊은 채 바다를 하염없이 맴돌게 만든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문무대왕릉이 있는 봉길해변이다. 문무대왕릉은 신라의 30대 왕인 문무왕의 수궁왕릉으로, 바다의 용이 되어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만들어졌다. 장엄한 바다 뒤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아름다워 전국적인 일출 명소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다. 특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거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엔 문무대왕릉 주변으로 물안개가 피어나 장관이다. 마치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점점 짙어지는 물안개 속으로 방금 떠오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면 몽환의 풍경이 펼쳐진다.



해운대 리버크루즈

경북 청도 프로방스

12월 도심은 어딜 가나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하다. 간간이 들려오는 흥겨운 캐럴과 알록달록한 전구들로 꾸민 크리스마스 장식에 괜히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연말 분위기에 흠뻑 취하고 싶다면 경북 청도에 위치한 ‘프로방스’가 제격이다.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 지역의 전원마을을 본떠 만든 작은 테마공원인데, 낮에는 유럽풍의 낭만적인 건물, 밤에는 수천만 개의 LED 조명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빛의 축제를 만날 수 있다. 특히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더 해 동화 속 나라로 변신한다. 기차길 양옆으로 세워진 유럽풍의 건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테마의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진짜 유럽의 어느 마을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곳곳에서 마주치는 산타클로스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재미도 쏠쏠하다. 마을 뒤 언덕에도 조명을 설치해 빛의 정원을 만들었다. 프로방스풍의 레스토랑과 글램핑장,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서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좋다.

경북 청도 프로방스



해운대 리버크루즈

부산만큼 아름다운 야경을 가진 도시도 드물다. 마린시티와 광안대교의 화려한 밤 풍경은 홍콩의 백만 불짜리 야경이 부럽지 않다. 조금 더 특별하게 부산 야경을 즐기고 싶다면 해운대 리버크루즈를 타보자. 한 시간 남짓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부산의 야경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 밤바다의 낭만과 로맨틱한 야경이 만나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완성된다. 해운대리버크루즈는 영화의전당 앞 수영강변 선착장에서 출발한다. 수영강을 따라 민락수변공원을 지나 광안대교 앞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코스다. 해가 질 무렵에 출발하는 배를 타면 일몰과 야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푸르던 강물이 보랏빛으로 변하고 마린시티의 고층빌딩에 하나둘 불을 밝히면 본격적인 빛의 향연이 시작된다. 바다 위에서 파노라마로 만나는 부산의 밤에 모두가 할 말을 잇는다.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배 위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는 연말 기분을 제대로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

힐링, 그 자체! 라오스 골프여행

글·사진_ Ytour&golf
www.ygolf.co.kr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단았던 여행 빗장을 풀면서 해외 골프 여행도 활기를 띠고 있다. 국내 골프장 이용객과 비용이 늘면서 비교적 가성비 있는 동남아 일대 골프장으로 많은 관광객이 떠나고 있는 시기이다. 최근에는 라오스가 골퍼들의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올겨울 라오스로 가는 전세기가 부산 출발로 운영되는 만큼 라오스 골프 여행을 알아보자.

라오스를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한국의 가을 날씨와 비슷한 11월~2월(건기)이다. 라오스는 친절하고 저렴한 물가로 여러모로 여행하기에 좋으며, 화려하지는 않지만 현지 사람들의 순수함에 여행하는 동안 힐링과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를 씻겨내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환율은 \$1당 약 15,000원) 음식은 밥과 국물 요리가 기본적으로 많아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다. 또한 고급스러운 서양 음식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라오스 여행의 매력 포인트이다.



롱비엔CC

롱비엔CC는 라오스에서 가장 크고 관리가 잘된 국제기준의 골프장으로 알려져 있다. 27홀의 코스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 경관을 그대로 살려 설계된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 부대시설** 클럽하우스, 연습장, 라커룸, 샤워실, 프로샵, 식당
- 위 치** 시내 중심에서 남동쪽 차로 30분 거리
- 캐디/카트** 1인 1 캐디, 1인 1 카트(성수기 사정에 따라 2인 1 카트)

레이크뷰 CC는 라오스에서 가장 최근인 2015년 만들어진 골프장이다. 시내 중심에서 약 8km 떨어진 거리에 인접한 골프 코스로 깔끔한 시설과 페어웨이 및 그린을 자랑하며, 코스 관리도 최상급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린 스피드는 빠른 편이며 곳곳에 있는 호수를 이용한 워터헤저드들 때문에 공격적인 샷을 구사하기에는 어려운 편이다.

- 부대시설** 클럽하우스, 연습장, 라커룸, 샤워실, 프로샵, 식당
- 위 치** 시내 중심에서 북동쪽 차로 25분 거리
- 캐디/카트** 1인 1 캐디, 2인 1 카트



레이크뷰CC



라오CC

라오CC는 라오스의 한국기업 코라오 그룹이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한국 정서를 담은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총 18홀 평지형 코스이지만 굴곡이 형성되어 제각기 다른 형태의 홀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부대시설** 클럽하우스, 연습장, 라커룸, 샤워실, 프로샵, 식당
- 위 치** 시내 중심에서 남쪽 차로 30분 거리
- 캐디/카트** 1인 1 캐디, 골프장 정책에 따라 전동카트 없으며, 캐디와 워킹

호텔 소개

더 큐브 호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 사이세타에 위치하여 도심에서 3km 거리로 도심 편의시설과 인접한 위치에 있어 여러모로 편리한 장점이 있다. 무료 초고속 WIFI와 수영장 헬스/피트니스센터, BAR/라운지, 음식점, 편의점, 레스토랑, 수영장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들도 갖추고 있다.



무영탄 럭셔리 호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운영되는 호텔로 베트남 호텔 전문 브랜드인 무영탄 호텔의 럭셔리 브랜드 카테고리 중 하나인 호텔로 실내 루프탑 겸 라운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루프탑을 통해 비엔티엔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무료 초고속 WIFI와 수영장 헬스/피트니스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



골프 열풍의 역설

글_ 김대곤 대표  Ytour&golf
www.ygolf.co.kr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골프가 대중화되었다고 한다. 골프장을 찾는 연령이 눈에 띄게 젊어진 걸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대한민국 골프가 대중화되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 골프는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대중화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 MZ세대의 골프 유입은 그저 단순한 유행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 기간 유일하게 가능했던 레저스포츠 중 하나였고 SNS에 민감한 MZ세대에게 골프는 하나의 명품 소비? 같은 과시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대중화라기보다는 모래성 같은 유행일 수도 있는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가니 중고골프채 시장에 골프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기사도 이를 반영한다.


‘최근의 골프 열풍은 골프대중화보다는 모래성 같은 유행’

골프는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운동이다. 한 달에 두세 번만 즐겨도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이동시간을 포함하면 하루를 온전히 투자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상당한 운동이다. 웬만한 젊은 직장인들에게 아직은 언감생심인 취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중화 보다는 그 저변이 조금 넓어졌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골프장의 특수는 대중화라기 보다는 실내 레저 및 실내스포츠가 코로나로 불가능해졌고 또한 해외여행이 막혀 빈번해진 영향도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급속하게 늘어난 여성 골퍼들의 몫이 컸을 것이라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등에 업로드할 필드에서의 사진 한 컷을 위해 비싼 골프의류를 사기도 하고 좋은 골프클럽을 써야 한다. 해외는 아니더라도 골프 여행을 가서 필드에서의 원정 사진 한 컷을 인스타에 담아야 하고 지역의 맛집을 방문해 음식사진을 SNS에 채워 넣어야 한다. 최근 골프 산업이 60퍼센트 가량 성장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대중화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을 때 가능 대중화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골프장이 1만 5천개 정도 되는 미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한국의 50배 되는 땅이 있으니 원할 때는 언제든지 찾아가 직접 카트를 끌고 라운드를 즐기면 되고 굳이 값비싼 골프의류를 착용할 필요가 없으니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골프를 즐길 수가 있다. 고작 5백여개의 골프장을 가지고 5천만명의 내방객을 소화하는 한국골프의 현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골프장 이용료가 우선 20~30불 정도로 저렴하다. 한국에서는 한 번에 30~4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기에 주기적으로 즐기기에 골프비용은 부담스럽게 짝이 없다. 거기에 골프용품, 골프의류까지 준비하기엔 웬만한 직장인 한 달 급여는 기본이다. 비싼 비용을 주고도 부킹이 힘든 골프장에 골프 인구가 늘어나니 골프장 이용료는 폭등했고 웬만한 경제력으로 골프를 즐기기에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골프 인구의 증가가 골프비용을 증가시켜 골프 대중화를 더 어렵게 했다는 역설도 가능하다.

‘골프 열풍이 가져온 요원한 골프 대중화의 역설’

사실 한국에서의 골프는 취미나 놀이보다는 비즈니스에 천착해있다. 골프는 몇시간을 함께 운동을 하며 사람을 사귀고 비즈니스를 접목하는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지금의 사회 주류를 이루는 5060세대는 그렇게 사업을 지키고 성장시켜 왔다. 많은 사업자들은 골프를 통해 비즈니스를 하고 골프에 대한 비용을 법인으로 경비 처리해가며 사업을 영위해온 것이다. 놀이처럼 생각하는 MZ 골퍼들에게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전히 골프의 주류는 그렇게 골프를 일의 연장선상에서 활용한다. 이렇듯 골프가 대중적이라는 것은 최소한 맞는 말은 아니다. 특히 비즈니스가 동반되고 아직도 시간과 경비가 만만찮게 소요되는 골프는 여전히 아무나 편하게 즐길 수 없다. 골프 대중화라는 말은 골프를 명품백 소비처럼 즐기는 MZ 골퍼들을 향한 골프 관련 기업들의 마케팅이자 거품인 것이다. 골프 열풍으로 인해 더욱 요원해진 골프의 진정한 대중화는 더 낮은 골프비용이 제시되고 더 많은 골프 경험의 기회가 가능할 때 말할 수 있다. 골프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중화를 위해 골프 유관 기업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때이다. 

골프 유행어

- 일취월장** 잘 취한 포터 샷이 길게 친 드라이버 샷보다 낫다.
- 사고무친** 드라이버, 세컨샷, 어프로치 샷, 퍼트 네가지를 모두 잘치면 친구가 없다.
- 이구동성** 세컨샷을 잘 치면 성공한 것과 다름없다.
- 오비아락** 한 명이 오비가 나면 두 명이 즐겁다.
- 삼고초려** 세 명의 고수와 함께 치면 초반부터 심려가 많다.
- 금상첨화** 폼도 좋고 스코어가 좋다.
- 유명무실** 폼은 좋은데 스코어가 나쁘다.
- 천만다행** 폼이 나빠도 스코어가 좋다.
- 설상가상** 폼도 나쁘고 스코어도 나쁘다.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게 해줄 영화 추천 몸으로 들려주는 희망가, <코다>

글_ 김은정 영화의전당 시네도슨트·영화평론가



개봉 2021.08.31.
등급 12세 관람가
장르 드라마
국가 미국, 프랑스
러닝타임 111분
배급 판씨네마쥬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고기잡이배에서 가족과 일한 뒤, 학교로 향하는 여고생이 있다. 그러니 수업 시간엔 즐기 일하고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놀림도 받는다. 바로 영화 <코다>의 주인공 루비의 이야기다. 루비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기도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영화 <코다>는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로 불리는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포함해 4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단번에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남우조연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2021년 가장 인상적인 영화 중 한편으로 꼽힌다. 이 영화는 차별과 편견, 책임과 희생, 소통과 단절, 꿈의 좌절과 희망,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라는 다소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특별한 연출로 전 세계 평단과 관객을 사로잡았다.

이중의 닫힌 세계

영화의 제목 코다(CODA)는 ‘Children of Deaf Adults’의 줄임말로, 농인(청각장애로 언어 구사가 불가능해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

부모에게서 태어난 청인(청각장애가 없는 사람) 자녀를 뜻한다. 가족 내 유일하게 소리를 듣고 말할 수 있는 루비는 운항 중인 어선에서 긴급 무전에 응답해야 하고, 부모의 병원 진료에도 동행해야 하며, 어업조합의 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 말하자면 그녀는 사회와 소통이 불가능한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 한편 루비는 어느 순간 자신이 음악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연히 가입한 학교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재능을 발견한 그녀는 음대로의 진학을 꿈꾼다. 그런데 부모의 세계엔 음악이 없다. 부모는 교내 음악회에서 딸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지만,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칠 수도, 딸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이해할 수도 없다.

비장애인인 주류인 사회에서 농인의 의사와 감정은 단절된다. 공감해주지 않는 사회에서 루비만이 부모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다. 한편 가족 내에서는 음악을 향한 루비의 열정이 공감받지 못한다. 농인 부모는 딸이 꿈꾸는 음악의 세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중의 닫힌 세계에서 인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몸으로 들려주는 노래

<코다>를 연출한 션 헤이더 감독은 몸의 체험이라는 방식으로 루비 가족의 단절과 화해를 표현한다. 그 첫 번째는 짧은 순간이지만 관객에게 농인의 시점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모두 흥겨운 노래를 따라부르던 교내 음악회 장면

에서 감독은 일순간 소리를 제거한다. 노랫소리는 사라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움직이며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남는다. 이 짧은 순간 관객은 농인인 부모의 세계를 조금은 이해하게 된다. 특별한 두 번째 연출은 부모가 루비의 노래를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음악회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루비에게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달라고 한다. 들을 수 없는 그는 노래하는 딸의 얼굴과 목을 살며시 만진다. 루비의 노래는 근육과 성대의 떨림으로 조금씩 아버지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마침내 버클리 음대 오디션장에 선 루비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을 향해 수어로 노래한다. 그 순간 루비가 꿈꾸는 세계인 노래는 부모에게 가닿는다. 이렇게 영화는 노래라는 희망의 씨앗을 몸으로 인물에게, 그리고 관객에게 전달한다.

새롭게, “GO”

이런 내용의 영화는 필연적으로 해피엔딩이다. 단절과 소외의 과정을 겪으며 두려움과 망설임도 있지만 결국 인물들은 한 단계 도약한다. <코다>는 딸과 부모 모두의 성장 영화다. 딸은 자신의 인생을 찾아 떠나고, 남은 가족들도 스스로 사회와 소통하고자 노력한다. 이 영화에서 아버지 역을 연기한 배우 트로이 코처는 실제 농인이다. 우리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유일한 한마디의 대사를 듣게 된다. “GO.” 그의 몸에서 나오는 소리와 메시지는 관객에게 크나큰 울림으로 다가갈 것이다. 🗣️

사진출처: 판씨네마쥬





육화목 가게 입구

한우와 한돈 모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육화목(肉火木)’

해운대 중동역 6번 출구를 나와 5분 남짓 걸다 보면 해운대 메트로하이츠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육화목’을 찾을 수 있다. 육화목은 상호 그대로 고기를 숯불에 굽는다는 의미로 질 좋은 한우와 한돈 구이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식당이다.



육화목 김명길 사장님

숯불구이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

육화목은 2015년 1월에 오픈한 한우와 한돈 숯불 구이 전문점이다. 육화목의 김명길 사장님은 손님들에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게를 시작하였다고 말한다. 보통의 숯불구이 전문점과는 다르게 한우와 한돈 모두 판매하고 있음에도 두 메뉴 모두 손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8번길 78 해운대메트로하이츠 상가 1층 7호



1



2



3

4

- 1_ 육화목 상차림
- 2_ 부위별 한우 구이
- 3_ 제주돼지김치찌개
- 4_ 육화목 별미 김치말이냉국수

네이버 블로거들이 인정한 맛집

육화목은 오픈 후 처음부터 장사가 잘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초기 1~2년 동안에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고기 맛을 알아본 손님들이 단골이 되고, 블로거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손님들이 많이 찾게 되었다고 한다. 육화목을 방문한 한 블로거는 한우와 한돈 모두 취급하는 맛집으로 유명한 대연동의 양산박처럼 육화목을 ‘해운대의 양산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맛을 알아봐 주는 고객들이 생기면서 현재는 지역 기업인, 해운대 인근 호텔 직원, 야구·축구·골프선수 등 다양한 단골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고객과의 인연을 소중히

최근 사장님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오랜 기간 단골로 알고 지내던 분이 출산을 담당해주는 의사로 만나게 되어 마음 편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메뉴 중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생대패오겹살도 단골고객의 오겹살을 조금 얇게 썰어 줄 수 있겠냐는 부탁으로 제공하게 된 것이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다고 한다. 김명길 사장님은 고객들과 한번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앞으로도 고객들과 맛있는 고기와 음식으로 소통하며 인연을 쌓아 나갈 예정이다.

최고 품질의 고기를 제공하는 식당

김명길 사장님은 20대 중반부터 유통회사, 정육백화점, 식육식당 등 정육 관련 업계에서 1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고기 전문가’이다. 오랜 기간 고기를 다루는 일을 해온 만큼 질 좋고 맛있는 원육을 선별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우는 육향이 진하고 육즙이 가득 날 수 있는 고기를 구매하며, 한돈 역시 지방과 살코기가 적절한 비율로 섞인 원육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구매한 고기들을 숙성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사장님이 직접 손질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만큼 손님들은 맛있는 고기를 맛볼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는 곳

육화목에는 한우와 한돈을 비롯하여 다양한 식사 메뉴도 있는데, 주로 한우는 꽃등심을 비롯해 특수부위까지 전반적으로 고객들이 많이 찾으며, 한돈은 육화목의 시그니처 메뉴로 불리는 제주생대패오겹살과 생갈매기살 주물럭이 인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식사 메뉴는 한우 사골 국물을 베이스로 하는 된장찌개와 온국수, 제주돼지김치찌개, 김치냉국수, 비빔국수, 누룽지 등이 있어 기호에 맞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애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글_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작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참사가 터지고 희생자가 발생하고 애도 기간에 함께 슬퍼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이후로는 열심히 자기 일에 다시 매진하면 건강한 걸까. 그렇게 있으면 괜찮아 지는 걸까.

세월호 재난을 아직 잊지 못했다면 건강하지 못 한 사람일까. 이태원 참사에 세월호 참사를 오버랩 시키고, 압사한 청년과 익사한 고교생을 함께 떠올리면 건강하지 못한 걸까. 오히려 잊지 못해야, 희생자를 떠나보내지 못해야 우리 사회가 달라지지 않을까.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시간은 멈춰 있다. 그들의 시간은 흐르지 않고 배가 가라앉던 그 시간에 정지해 있다. 그들은 그 순간을 반복해서 살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부모들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그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차마 가늠할 수 없다.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듣는 것도 힘겹다. 이 노래는 임형주에 의해 세월호 추모곡으로 헌정되었다. 노랫말은 아이들 목소리처럼 다가온다. 우리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남아 있는 그 아이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었다. 이 노래에는 그 목소리가 겹친다. 듣기가 고통스럽다. <천 개의 바람이 되어>의 가사를 읊기는 것도, 세월호 아이들의 음성메시지를 인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게 편안하게 재현할 수가 없다. 과거형의 고통이 아니라 진행되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애도(mourning)란 떠나보내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논문 「애도와 우울」에서 상실이 애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울증이 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우울증과 함께 살 수 있다. 우울증이 있어도, 차라리 우울증이 있어야 건강할 수 있다. 재난으로 울증을 겪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잊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잊지 않는 것’과도 다르다. 잊지 못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잊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잊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결과다. 일터에서 꾸역 꾸역 밥벌이하고, 거기서 번 돈으로 가족과 자식을 먹이는 것, 밥 먹는 내 새끼 얼굴을 보면 몽클해지는 것은 그 참사들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불행한 참사들을 다 잊었다면 우리는 또다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을 착취하고,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식을 다그치고, 그렇게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소외시킬 것이다. 참사의 희생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해야 하는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더 사랑해야 할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권력자들도 세월호를 잊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은 너무 정상적이어서, 매사에 긍정적이었고 지나치게 자기 확신이 있었기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 이 지나친 정상, 과도한 긍정성, 넘치는 자기 확신이 또 다른 참사를 만든 조건이 되었다.

권력자는 애도조차 형식화하여 잘 마무리한다. 애도 ‘기간’을 정하고, 애도의 내용을 지정한다. 여기저기 애도 플래카드도 붙인다. 모든 것이 적절한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정상증후군이다.

정상증후군(Normotic illness)은 병리적 증상이다. 정상증후군 환자는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다. 슬픔과 고통 같은 감정은 부정되고, 서둘러 그 상황을 봉합하려고 한다. 우리는 정상증후군 환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슬픔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 에너지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계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쓰일 것이다.

희생은 우연이다. 누구든 그 희생자의 자리에, 희생자 가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믿기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믿기지 않는 일은 잊히지도 않는다. 애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애도에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세상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애도에 실패한 자들은 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다. 타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끌어와 자기연민에 젖지도 않는다. 진정 슬퍼해야 할 것,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고, 가치와 진실을 찾아 앞으로 나아간다.

2023년이 시작된다. 우리는 잊지 못하기에, 더 겸허하고 더 따뜻해질 수 있다. 🇰🇷

사진으로 보는

부산상공회의소 2022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1 JAN 1.3.

새해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 현장 방문

1.14. ~ 18.

2020 두바이 엑스포 현장 시찰

1.26.

국민의힘 부산지역선대위 초청 상공인 간담회

3 MAR 3.17.

부산발전 핵심 현안 국정과제화 부산시-부산상의 합동회의

4 APR 4.22.

경제계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 대회

4.26

S-SPACE 강소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식

#기업애로 해소 #사기진작



6.16.

부산상공회의소 박형준 시장 초청 정책 간담회

6.3.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 총흔탑 참배



5.19.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부산 유치

5 MAY 5.8.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엄지척 오디오션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지역경제 발전 핵심현안 해결



7 JUL 7.19.

부산상공회의소 창립 133주년 기념식



8 AUG 8.24.

부산시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



9 SEP 9.29.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10 OCT 10.12.

부산상공회의소 이노베이션 밋업 페스티벌 99°C



10.28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 초청 환영 오찬



11 NOV 11.24.

제40회 부산산업대상

부산상공회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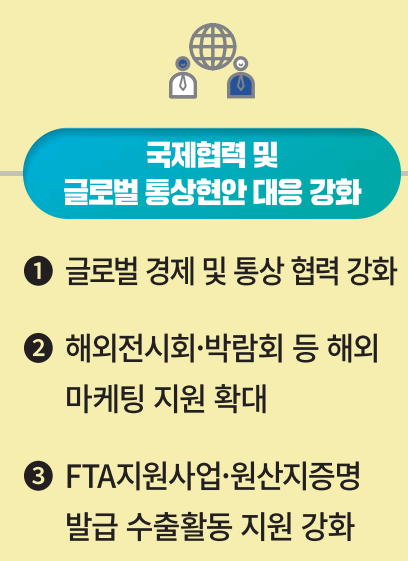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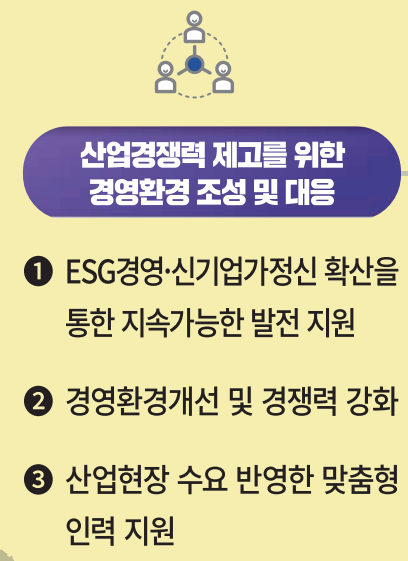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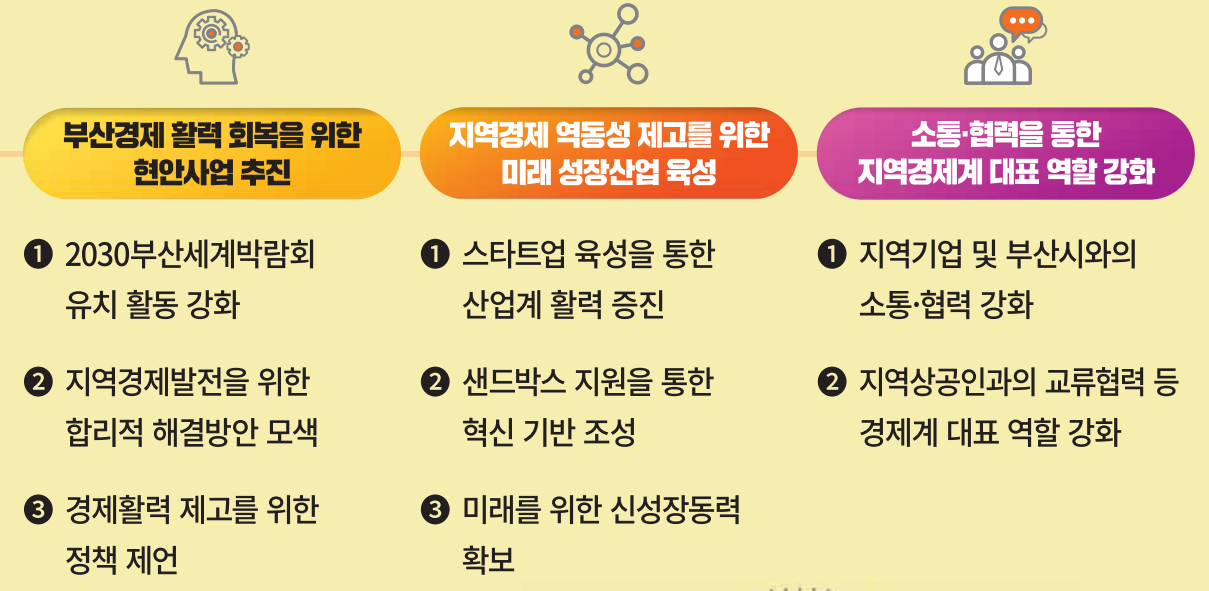
2023년도 사업 계획

VISION

부산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새로운 부산상의



통합과 혁신의
새 시대로



부산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강화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및 활동 강화
 - 지역 내 유치 열기 확산 및 국내외 유치활동 강화
 - 대정부 건의 및 국내외 유치 공감대 형성사업 추진
 - 부·울·경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 박람회 유치를 위한 복합 재개발 사업 추진 지원

★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 지역현안사업 주도적 추진
 - 가덕신공항 건설 및 공항복합도시 조성
 -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추진 사업
 - KDB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사업
-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규 아젠다 발굴
 - 경제정책자문위원회·블록체인산업특별자문위원회 운영
 - 지역개발 현안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
 -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담당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지역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산업계 제언
 - CEO FOCUS: 경영인 의견 조사
 - 상속세제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산업별 주요 이슈 점검 통한 정책 과제 발굴

소통·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대표 역할 강화

★ 지역기업 및 부산시와의 소통·협력 강화

- 온-오프라인 소통플랫폼 운영을 통한 윈스톱지원체계 구축
 - 「부산경제인 소통플랫폼」을 통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윈스톱 기업애로 해소센터」를 통한 기업애로 상담 및 지원기능 강화
 - 규제개선에 적극 대응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국회·정부·부산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확립
 - 부산상의-부산시 경제협의체 운영
 - 국회의원 및 정부인사와의 정책담당회
 - 국회·정부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미래 성장산업 육성

★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통한 산업계 활력 증진

-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 전략적 육성·지원
 - 부산상의 스타트업 밋업 네트워킹
 - 스타트업 육성 위한 멘토링 그룹 운영
 - 차세대 기업인과 스타트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스타트업 선후배 기업인간 후견인 네트워크 구축

샌드박스 지원을 통한 혁신 기반 조성

- 규제샌드박스, 제도·규제혁신지원센터를 통한 기업지원
 - 부산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
 - 제도·규제혁신 지원센터 운영
 - 지역 주요 특·지구별 규제개선 과제 및 기업애로 조사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존산업 고도화 연구
 - 부산지역 반도체산업 실태 조사
 - 부산지역 뿌리산업 고도화 실태 조사
 - 부산지역 기업지수 산출 및 유망기업 선정
 - 부산기업 상장(IPO) 추진 실태 조사
 - 부산형 거점오피스 구축 방안 연구
 - 지역기업 사이버보안 실태 조사

●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 경제 제언

- 경제조사 전문가 그룹 운영
- 지역 유관 연구기관 조사연구 협력사업

지역상공인과의 교류협력 등 경제계 대표 역할 강화

- 경제현안에 대한 지역 경제계 대표 의견 개진
 - 정책자문단·경제전문가그룹을 활용한 경제현안 해법 모색
 - 지역기업과의 접점을 활용한 경제계 목소리 수렴·건의
 - 경제 관련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건의
 - 주요 업종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한 산업 현장 의견 수렴
- 지역상공인 간 교류 협력 강화
 - 신년인사회, 부산산업대상 등 지역경제계 대표 행사 개최
 - 부산경제포럼, 글로벌 경제인과정, 글로벌 넥스트포럼 등 회원기업간 교류 확대
 - 분야별 위원회 운영 및 기업 교류의 장 마련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환경 조성 및 대응

★ ESG경영·신기업가 정신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ESG 경영 확산 및 실천 지원
 - 지역기업 ESG경영 역량강화 지원사업
 - ESG 경영 컨설팅 및 진단 평가
 - ESG 포럼 개최 및 ESG 경영 홍보
- 신기업가 정신 확산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
 - 신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콘퍼런스 개최
 - 사회가치 증진을 위한 기업목적과 역할의 확장
 -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의 기업 차원의 해법 제시
 - 탄소중립 대응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경영환경개선 및 경쟁력 강화

- 경영애로해소 지원 및 경영환경 개선
 - 온-오프라인 윈스톱소통 창구 신설 및 피드백 제공
 - 찾아가는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반 운영
 - 기업애로해소 간담회

● 경영지원서비스 강화

- 회원사 창립기념 축하사업
- 회원기업 온라인 홍보 및 방문 교육 지원
- 회원사 노무·세무·회계 등 직무 교육 사업
- 회원사 제휴 서비스 강화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 지원

- 산업·지역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 주도
 - 전문 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운영
 - 일자리 매칭 사업
 - 부산지역 산업 수요에 특화된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 자격평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국제협력 및 글로벌 통상현안 대응 강화

글로벌 경제 및 통상 협력 강화

- 글로벌 경제협력 활동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 해외순방 경제사절단 파견 및 방한사절단 영접
 - 글로벌시장 개척 추진단 파견
 - 해외 주요기업과 회원사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 해외상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확대
 - 통상정보제공 세미나 개최
 - 말레이시아 의료미용 박람회
 - MTA 태국 방콕 기계 박람회
 - 베트남 국제 뷰티 박람회
 - 호치민 국제 식품 및 식음료 박람회
 - 인도 뭄바이 조선해양 전시회
 - MTA 베트남 하노이 기계 박람회

FTA지원사업·원산지증명발급 통한 수출활동 지원 강화

- FTA지원사업 활용도 제고
 - FTA지원 설명회/세미나 개최
 - FTA전문인력 양성
 - OK FTA컨설팅 / 자체컨설팅 사업
- 원산지증명 전문성 강화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안정적 발급시스템 운영
 - ATA 까르네 활용 편의성 제고
 - 증명발급 직원 전문성 강화

★ 2023년 주목해야 할 신규사업

✓ 부산경제인 소통플랫폼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역기업들의 경영애로와 규제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해결해주기 위해 부산상의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구축한 온-오프라인 윈스톱 기업애로 소통 플랫폼
- ▶ 온라인 플랫폼: 부산상의
- ▶ 오프라인 윈스톱 기업애로 해소센터: 부산시(시청 1층)

✓ ESG 경영 컨설팅

-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경영 트렌드인 환경, 사회적 가치, 투명한 경영구조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ESG 민관협의회, ESG경영 홍보, 정보제공 등 ESG경영 저변 확대와 수출기업과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ESG 자가진단, 컨설팅을 지원

제40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 개최

부산상공회의소는 11월 24일(목) 11시 30분 부산상의 상의홀에서 올해로 40회를 맞이한 부산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부산산업대상은 1983년 제정된 이후 지역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매년 지역 경제와 상공업 발전을 위해 뚜렷한 업적을 남긴 기업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도 부산상의는 부산산업대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경영, 기술, 사회공헌 등 3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부문별 수상자로는 ▲경영부문 희창물산(주) 권중천 회장 ▲기술부문 (주)오리엔탈정공 박세철 회장 ▲사회공헌부문 고려제강(주) 주종대 대표이사가 각각 선정되었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부산경제와 기업의 발전을 위해 뛰어난 업적을 보여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지역경제계는 현재의 위기가 오히려 기업성장 및 신산업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ESG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들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 경영부문 권중천 회장은 1980년 희창물산(주) 설립 이후 지난 40여 년간 북미, 중남미, 유럽 등 전 세계 곳곳에 1,000여종이 넘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을 통해 K푸드의 세계화를 이끌어 왔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영부문 수상자 희창물산(주) 권중천 회장



기술부문 수상자 (주)오리엔탈정공 박세철 회장

2— 기술부문 박세철 회장은 극저온 작동 선박용 크레인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주)오리엔탈정공을 지역 대표 조선기자재 기업으로 발돋움시켰으며, 산업현장의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는 등 기술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수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사회공헌부문 수상자 고려제강(주) 주종대 대표이사

3— 사회공헌부문 주종대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출발한 고려제강(주)이 국내를 대표하는 특수선재 생산 철강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영공장을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인 'F1963'을 통해 부산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시상식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하였으며, 그 외에도 지역 주요 기업인 등 내빈 110여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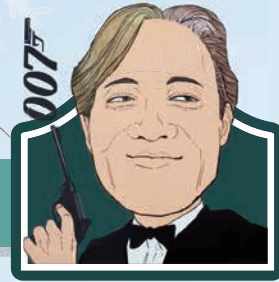


제40회 부산산업대상 기념촬영



캡틴장의 새로운 캐릭터!
"제임스본드 같은 멋진 벨"

Story of 캡틴 장



by 웹툰작가 배민기

#누구보다 부산을 위한 캡틴장

총장님 글로벌 해양 도시 부산에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 초청 환영오찬(2022.10.28.)

유엔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런투워드 부산 챌린지(2022.11.7.)

대표님 부산 발전에 힘이되는
좋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부산CBS 이재용 대표 접견(2022.11.7.)

2023년은
부산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장인화 회장 언론사 인터뷰(2022.11.18.)

#추모(追慕)

이태원 사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태원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추모(2022.11.2.)

#2022년 중 가장 중요한 날

내년에도 부산상의가
회원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장단 회의(2022.11.24.)

2023년도 부산상공회의소
사업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8회 상임위원회(2022.11.24.)

권회장님 산업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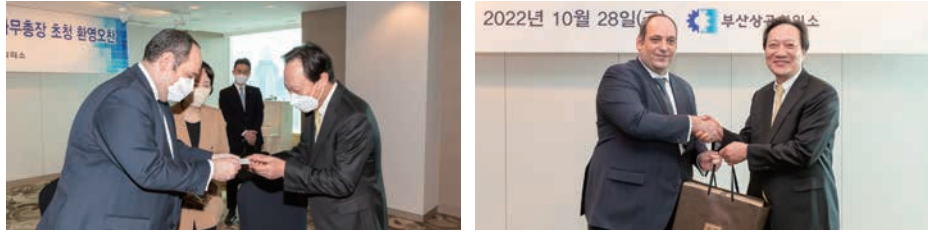


제40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2022.11.24.)



부산상공회의소

국제박람회기구(BIE) 디미트리 케르켄테츠 사무총장 초청 환영 오찬 개최



부산상공회의소는 10월 28일(금) 오후 12시 20분 부산롯데호텔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디미트리 케르켄테츠 사무총장 초청 환영 오찬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 및 지역 주요기업인 20여명과 국제박람회기구(BIE) 디미트리 케르켄테츠 사무총장, 유대중 주불대사, 신재현 부산시 국제관계 대사,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하였다.

행사에서 장인화 회장은 드미트리 케르켄테츠 사무총장에게 “부산은 2030세계박람회를 통해 작고 가난한 항구마을이 세계 5위권 항만을 갖춘 해양도시로 성장한 경험들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인류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세계인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부산의 매력과 미래 가치를 충분히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로 부산을 적극적으로 지지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디미트리 케르켄테츠 사무총장은 “부산에 엑스포가 유치 된다면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하며 “국제박람회기구(BIE)에 부산의 열망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지역 주요 기업인들과 디미트리 케르켄테츠 사무총장 기념 촬영



2030 World Expo Latest News Updates



1 제9회 국제컨퍼런스 개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부산시,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대한상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제9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디미트리 케르켄테츠 사무총장을 초청해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제시하고자 하는 미래 비전에 대한 대한민국과 부산의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2 한덕수 총리 APEC 정상회의에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전개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활동을 하였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APEC정상회의 기간 중 틈틈이 APEC 정상 중 BIE회원국 정상 전원을 일일이 직접 접촉하면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4 부산시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 면담

부산광역시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을 방문중인 볼프강 소보트카(Wolfgang SOBOTKA)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을 서울에서 면담하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였다.

3 부산시, 해운대 빛축제 연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포토존 조성

부산시는 제9회 해운대 빛축제와 연계해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포토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포토존은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감대를 조성하고 개최 후보도시인 ‘부산’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시, 부산시의회, 외교부



C.W (주) 천우테크
CHUNWOOTECH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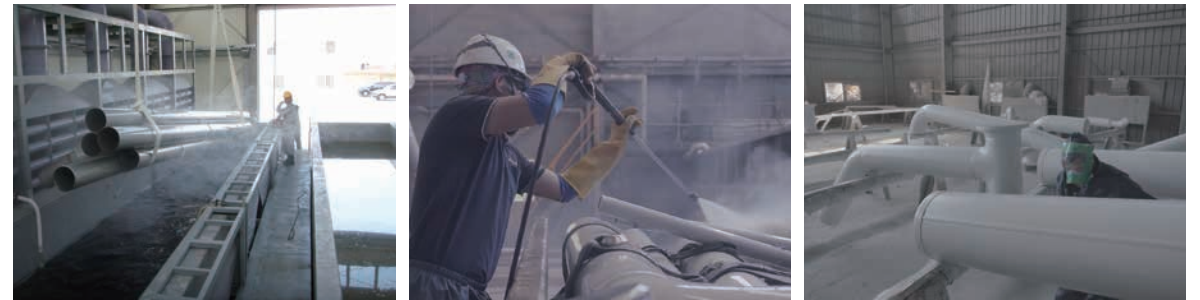
대불공장 전경

최고의 기술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친환경 금속표면전문기업 (주)천우테크

‘Small but Strong’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함께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이 있다. (주)천우테크는 조선해양 및 육상 플랜트 분야의 금속표면처리와 설치, 크리닝과 안전 테스트에 뛰어난 기술을 갖고있는 기업이다.



대불공장 내부와 외부의 배관들



조선해양·육상 플랜트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천우테크는 2001년에 설립되어 부산 본사를 비롯하여 대불 공장, 녹산 공장, 천우플랜트(대불) 등 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조선해양 및 육상 플랜트 설계, 시공, 시운전에 관련된 금속표면처리, 설치, 크리닝&테스트 분야이다. 세부적으로 금속표면처리는 산세, 부동태, 인산염피막, 케미컬/오일플러싱 등의 작업을 주로하고, 설치는 배관, 보온 설치 등을 하며, 크리닝 및 테스트 분야에는 멤브레인 크리닝, 전장크리닝, 에어/하이드로 테스트, 카메라 테스트 로봇개발을 통해 플랜트 설계부터 시공, 시운전까지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케미컬 전문제조회사로 설립된 천우테크는 2004년 NANO급 정제기술을 바탕으로 수입품에 의존해오던 플라즈마 절단용 마킹 파우더를 국산화시켜 보급하였다. 천우테크가 개발한 마킹 파우더는 수입품에 비해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뛰어나 국내 주요 조선소와 플라즈마 커팅기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천우테크는 스테인리스강의 패시베이션(금속표면처리) 제품인 CW-R2를 2004년 독자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였다. 금속표면처리제인 CW-R2는 개발 당시 기존의 처리제와 달리 약품에 중금속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무질산 산세(소재 표면의 산화물 제거) 처리법을 적용해 질산을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유해가스인 녹스(Nox)의

발생이 없다. 녹스는 환경규제 대상 물질로 신체 접촉 시 치명적인 만큼 CW-R2는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며, 유독물질이 전혀 없어 폐수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또한 작업 공정도 기존 방식은 8단계로 이뤄지지만, 천우테크의 CW-R2를 사용하면 4단계로 공정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생산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 천우테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시장에서 금속표면처리 약품 개발과 생산 그리고 시공까지 하는 기업은 잘 찾아볼 수 없는데 천우테크는 이 모든 것을 직접 수행한다. 이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두고 철과 비철 부문 금속표면처리 기술을 지속해서 연구함과 동시에 제품

특허를 받은 친환경 CW-R2 약품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로 얻어낸 각종 특허와 인증서들

으로 개발하여 시공까지 사업화해가는 천우테크만의 노력이 담겨 있기에 가능하다. 특히 천우테크가 개발하는 제품에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늘 중심에 있다. 금속표면처리 과정은 공정에서 유독물을 사용하여 환경에 치명적이며, 유해 물질이 발생하여 대기오염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도 위협한다. 천우테크는 유독물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이 확보되는 처리제를 개발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대기 환경까지 고려하는 친환경 제품을 항상 지향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파이프 배관 내부의 부식과 용접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360° 회전 촬영 로봇 카메라를 개발하였으며, 골프장에 사용되는 수입 비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비료,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면서 냄새까지 분해할 수 있는 소취제, 식물이 오랫동안 시들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품과 식물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약품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다양한 이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 CEO

천우테크의 김상진 대표는 회사 경영 외에도 부산태권도협회 회장, 부산시 체육회 감사, 아시아 태권도연맹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태권도 선수 출신인 김상진 대표는 기본적으로 체육과 경영은 닮은 점이 많다고 하며, 기업 경영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과 관계하는 일이기도 한만큼 태권도 선수 활동과 체육관 운영을 통해 선수 육성·관리를 오랜 기간 해오면서 사람의



1_ 360도 회전하며 배관내부를 촬영하는 로봇카메라
 2_ 테스트 중인 로봇 검사



2019년 김상진 대표가 에티오피아 대통령궁에 방문한 모습

심리적인 측면을 잘 이해하게 된 것이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김상진 대표는 주한 에티오피아 명예영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활동과 함께 늘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도 펼쳐 나간다. 코로나로 부산의 태권도 체육관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부산시 전체 체육관에 임대료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고신대 태권도 선교회에 장학금을 기부해왔다. 그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서 부산으로 유학 온 에티오피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온정을 나누어왔다.

직원들과 동반 성장해 나가는 기업

김상진 대표는 평소 회사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부한다. 늘 정직하고 올바르게 기업을 경영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으며, 회사는 직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곳이라고 말한다. 천우테크는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인 임금인상은 물론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0년 제8회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 대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0 대한민국 시민인권상도 수상하였다.

친환경을 지향하는 장수기업을 향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조금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소홀하게 되면 시장에서 도태되기 쉬운 것이 기업 현장의 현실이다. 천우테크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꾸준히 투자해나가는 기업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사업의 지향점으로 두고 혁신을 향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친환경 기술과 함께 해양 플랜트 뿐만 아니라 육상 플랜트에서도 사업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갈 천우테크의 미래가 기대된다. 🚀



2022년 부산강소기업 인증서를 수여받는 김상진 대표



인공지능 재활용 폐기물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이종혁 대표

StartUP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소개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쓰레기에서 자원을 분리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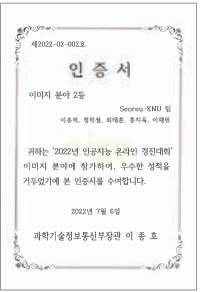
2019년 창업한 서르는 시각과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주관하는 ‘2020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었다. 수상은 ‘사물 인식 분야’에서 ‘생활폐기물 분류’라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주제로 수상했지만, 최근 각국의 지도자들이 앞다투어 강조하는 환경 이슈를 인공지능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상적이다. 서르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필요한 분류 로봇 기반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기존 자동 분류기나 로봇에 인공지능을 최적화시킨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서르는 약 60만장의 방대한 폐기물 이미지 데이터를 가공하여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완성했다. 인공지능이 사람 만큼 똑똑하게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품질 데이터셋이 많이 필요한데, 서르는 이 부분에서 국내 최대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폐기물은 색상과 모양, 그리고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분류가 가능한 유연한 객체 검출 알고리즘이 필요하며, 이는 풍부한 ‘쓰레기’ 정보를 갖고 있어야 구현이 가능하다.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개발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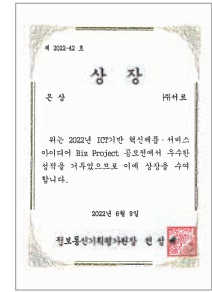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숙련된 어노테이터 풀, 역량 있는 알고리즘 개발자 및 리서처, 그리고 이들이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 볼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서르는 인공지능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의료 부문에 좀 더 집중하여 서울대병원을 비롯 20곳 이상의 병원과 100억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또한, 데이터 바우처 공급기업 및 AI 바우처 공급업체로 패션, 인테리어 등 다양한



2020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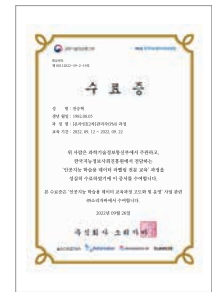
2022년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 2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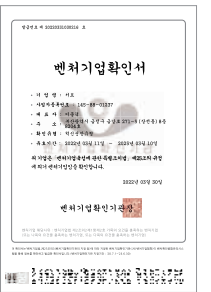
2022년 ICT Biz Project 상장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데이터전문수료증



벤처기업확인서



(주)서르 이종혁 대표

인공지능 기술로 재활용 폐기물 시스템을 개발하는 (주)서르

(주)서르는 인공지능으로 재활용 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결합한 재활용품 선별 시스템은 미래 사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이다.



1,2_ 인공지능 분류기



형태의 데이터 구축에 도전했다. 이러한 도전은 인공지능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이어져 새로운 프로젝트의 수행으로 연결되는 부수적인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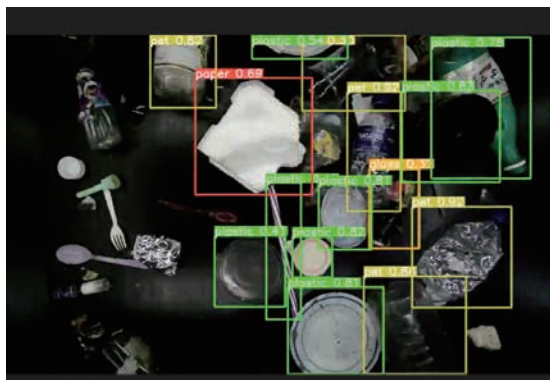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제품 개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재활용 분류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AMP 로보틱스’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서유럽 등지의 재활용 처리 시설에 재활용 로봇 200여 대를 배치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벤처캐피탈인 세쿼이아 캐피탈(Sequoia Capital) 등이 이 회사에 7,450만 달러를 투자했을 정도로 촉망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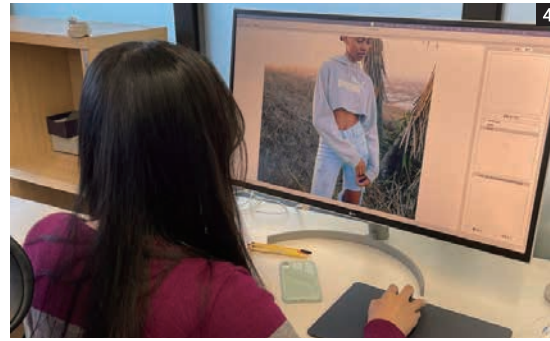


1_ 데이터 구축 및 AI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서르 직원들
2_ 서르의 AI 컨설팅

있다. 서르도 자체 제작한 인공지능 엔진을 기존 델타 로봇 (3~5개의 팔로 구성된 로봇)에 적용했다. 컨베이어벨트를 이동하는 쓰레기들을 인식하고 분류하여 로봇팔에 어떠한 재활용 폐기물을 집어 올릴지 명령한다. 분당 60개 내지 80개 정도의 재활용 대상품의 픽업이 가능하다. 한편, 서르는 선반 방식의 대용량 선별기도 개발 중이다. 동시에 다수의 재활용 물품 선별속도는 델타 로봇 방식의 재활용 분류 로봇보다 2배가 빠르고, 가격과 유지비용은 절반이다.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분류 로봇뿐만 아니라, 배출단의 제품도 개발했다.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는 항상 재활용 폐기물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좀 더 편리하고 깨끗한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돕는 분류기를 개발한 것이다.



생활 폐기물 아노테이션



3_ 서르의 패션데이터로 제작된 스마트 미러
4_ 아노테이션 작업을 하고 있는 서르 직원
5_ 동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이종혁 대표

막강한 가격 경쟁력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에는 많은 R&D 비용이 소요 되고, 시행착오 비용은 그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아직까지 인공지능 재활용 시스템 분야에서는 R&D와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르는 2022년 수천만 원대의 키오스크 제품을 1/4 가격으로 대체하는 제품을 출시하고자 한다. 내년에는 델타 로봇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제품을 1/3 가격에 출시할 예정이다. 두 가지 분야에서 확실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개발, 특허 출원 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고 있다.

부산시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성장

올해, 5월 서르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B.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in 부산’ 프로그램을 통해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그룹 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들의 재활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소각이나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서르는 재활용폐기물이 배출되는 시점에 바로 고품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 뚜껑과 스티커 같은 복합재질 제거 등의 후처리를 통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매립 또는 소각이 되어야 하는 제품을 배출단부터 분리시켜 2차, 3차 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재활용 폐기물이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한다. 향후에는 재활용품의 선별 및 유통을 최적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더욱 많은 양의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함께할 때 더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기업

재활용폐기물 중 단지 10% 만이 고품질 재활용품으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매년 수조원의 비용이 지출이 된다. 서르는 이 비율을 조금씩 키워서 50%까지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늘려나가고자 한다. 서르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는 만큼 서르의 비전에 공감하고 함께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협업하고자 하는 기업은 언제나 환영한다는 마인드로 사업을 개척해나갈 예정이다. 🧠

2022 산학협력 EXPO에 참가한 서르 직원들



저는 받는 만큼만 일 할래요.

직장인들의 'Quiet quitting'

'조용한 사직' 챌린지

최근 '조용한 사직'이라는 챌린지가 등장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챌린지는 미국 뉴욕에 사는 20대 IT 엔지니어 자이드 펠린이 자신의 SNS에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물로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7초짜리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350만, 4,500개가 넘는 댓글과 50만개에 가까운 좋아요가 달리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이후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SNS에 '조용한 사직' 영상을 올리며 일종의 챌린지로 확산되고 있다. '조용한 사직' 챌린지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도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핫한 개념이 되었다. 왜 '조용한 사직'이 직장인들 사이에 화두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자.



진짜 그만두는 거야?

조용한 사직이 진짜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직'이라는 단어만 보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주어진 일, 최소한의 일과 책임만을 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삶과 업무를 동일시하던 기성 세대의 가치관인 허슬 문화*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허슬 문화: 일을 사랑하라는 개념으로 개인의 생활보다는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문화)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조용한 사직'의 예시를 보면 4가지로 나뉘고 있다.

- 1 정시 출근·퇴근
- 2 업무 시간 외에는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 업무와 관련된 응대를 하지 않음.
- 3 회사에서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만들지 않음.
- 4 회사에서 '나'의 일상을 많이 노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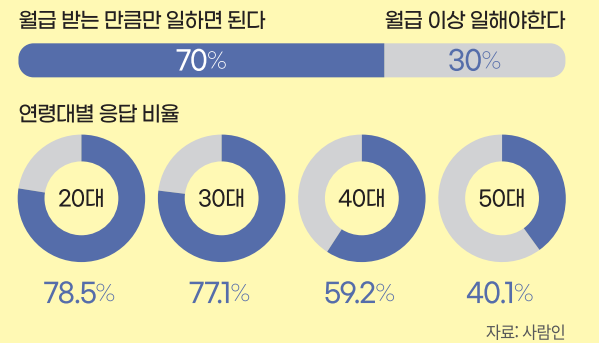
'조용한 사직'의 예시를 살펴보면 자신에게 부여된 일 외에 그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걸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수동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조용한 사직을 공감하는 직장인들은 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 일해도 남는 게 없다고 하는 데 공감한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는 등 시간을 투자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긍정적인 시각

조용한 사직을 찬성하는 MZ세대들은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은 책임을 가지고 다 하겠지만 그 이상 과도한 업무는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초과 근무를 하지 않기 위해 주어진 시간에 집중해서 일을 끝낸다는 것을 부정적 시각이 아니라 근무 시간 동안의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 시킨다는 것이다.

받은 만큼만 vs 더 열심히

요즘 MZ세대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조용한 사직'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과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된다'라고 답했으며, 10명 중 8명이 '지금 직장은 평생직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렇게 '조용한 사직'이 이슈가 되면서 일터에서 주어진 일만 하는 게 당연하단 입장과 주어진 일은 최소한의 것이고 성과와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치열함을 더해야 한다는 입장의 의견들이 나뉘고 있다.



소통과 함께 서로가 Win-Win 하는 전략으로

이처럼 조용한 사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는데, 기업은 직원들이 조용한 사직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합당한 보상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개인은 회사에 다니는 것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발전 기회로 성취감을 얻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때는', '옛날에는' 같은 시선 보다는 세대 간, 기업과 개인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부정적인 시각

조용한 사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업무까지 맡게 되면 프로젝트에서 더 크게 기여를 하게 되고 승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 발전이 없고 업무 태도가 조직 전체의 능력을 저하 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청년이 살고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자

글_ 최재봉 성균관대학교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학과장/기계공학부 교수

디지털 문명의 발전은 사실 아이 낳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확산시키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교육 수준이 높고 디지털 활용 능력이 세계 최고라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앞친 데 뺏친다고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눈부신 속도로 발전만 해오던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에 진짜 어려운 위기가 닥친 것이다. 문제는 그 해법이 과거의 기준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른들은 공장만 많이 짓고 월급 많이 주는 회사만 유지하면 청년들이 몰려들거라고 생각한다. 지난 30년간 부산이 발전한 공식이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그럴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공한 어른들의 생각과 지금 청년들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난 30년간 우리에게서 두 개의 커다란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주요경력

-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기 심의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방송통신(CT)대연합 디지털소사이터티 최고위원
- (주)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주요저서

- 최재봉의 메타버시아이(2022)
- 체인지나인(2020)
- 포도사피엔스(2019)

방송출연

- JTBC <차이나는 클라스>
-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4회
- CBS <세바시 나머지 45분>
- SBS Biz <빅퀘스천>
- MBC 다큐플렉스
- tvN story <책읽어주는 나의 서재> 등 다수

선진국 도약과 디지털 혁명

지금의 기성세대가 청년이던 시절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나아가던 시절이었다. 가난했던 청년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선진국의 모든 것을 카피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말도 안 되는 발전을 이루며 대한민국을 세계 6위(2022 US News 발표 세계 강대국 랭킹 순위) 국가로 성장시켰다. 지금의 부산을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말 그대로 상전벽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0년간 어느 국가도 하지 못한 기적 같은 선진국 도약의 혁명을 우리가 이뤄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선진국 환경에서 자라났고 지금도 선진국과 경쟁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더 이상 남의 걸 베낄 것이 없는 사회가 된 것이다. 거기에 겹친 혁명이 디지털 대전환이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 문명을 호흡하듯 활용해 온 세대다. 지금 20대들이 어른들한테 무언가 물어본다면 그것은 몰라서 가르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묻는 것이다. 이제 이들은 모든 지식을 검색해 얻고 모든 정보, 행복한 삶의 기준, 성공의 조건 등을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통해 교환하고 학습한다.

심지어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국경조차 중요하지 않다. 이미 디지털 문명에서 생활하는 20대들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디지털 역량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들이 겪어야 하는 세상에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학습하고 생각을 교환하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 3년 동안 이들은 디지털 역량이 얼마나

자기 미래에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디지털 양극화는 이미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

부산에 청년들이 오래 머물게 하려면 그들의 생각을 들어 보고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고 그들이 좋아하는 산업을 키워야 한다. 잘 만들어 놓은 제조 기업들도 이들 20대가 좋아할 수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재택근무, 사내 문화, 조직체계, 임금체계, 자기 개발, 후생 복지 등 무엇이든 이들이 매력을 느낄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좋은 회사에 입사한 20대 중 30%가 1년 안에 ‘미래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는 시대다. 심지어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하던 고액 연봉의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이제 다시 출근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차라리 퇴사하겠다고 사표를 내는 사회가 되었다. 연봉이 좀 깎이더라도 재택근무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겠다는 청년들이 이미 글로벌하게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가는 길

주목할 것은 최근 실리콘밸리의 움직임이다. 엄청나게 올라 버린 집값과 물가로 인해 실리콘 밸리 근무자들이 근처 아리조나 피닉스로 대거 옮겨가고 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기업들이 디지털 경영을 강화하면서 20% 낮은 연봉을 받더라도 아이들 교육과 생활

환경이 우수한 피닉스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 일어나고 있는 뉴노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일자리와 산업을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산업과 도시를 만드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지상과제가 되었다. 메타버스 산업은 그래서 매력적이다. 판교에는 지금도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당마다 젊은 청년들이 차고 넘친다. 반도체, 플랫폼, 게임, 미디어 등 디지털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은 물론이고 스타트업들까지 차고 넘친다. 판교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다. 그렇다면 부산상의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미래 산업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사실 거창하게 따질 필요도 없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산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는지, 다니고 싶은 회사가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가 생각을 고쳐야 한다. 청년을 뺏친다고 그들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다행인 점은 디지털 문명을 즐기는 전 세계 20대에게 부산은 여행하기 매우 매력적인 도시라는 점이다. 유튜브에서 보면 부산을 자랑하는 많은 영상이 쏟아져 나온다. 여행은 좋은 출발점이다. 좋은 경험을 제공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머물러 살고 싶은 환경, 교육여건, 일자리, 기업 등을 만드는 게 남은 숙제다. 답은 이미 데이터에 나와 있다. 청년들의 팬텀을 끌어낼 요소들을 찾아 차근차근 담아 내면 된다. 기적도 만들었는데 이까지 어려움이야 잘 극복해내지 않겠는가. 세계의 20대들이 열광하며 찾아와 살며 사랑하는 부산이 되길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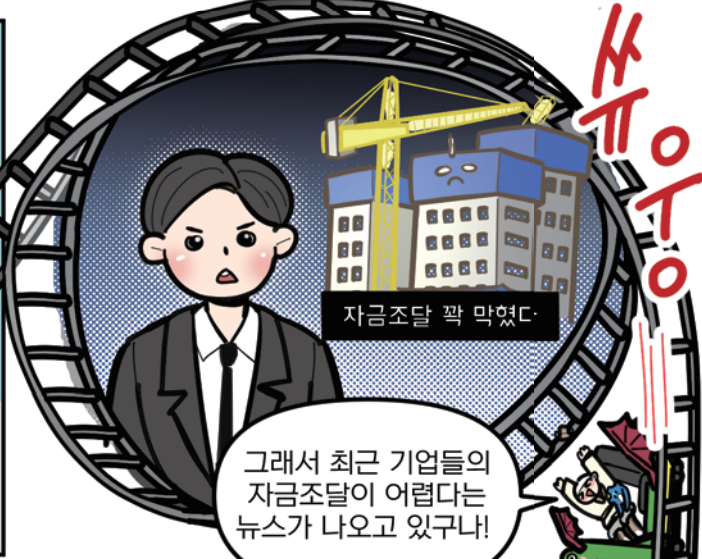


그림 슝트빔

레고랜드 사태가 불러온 기업의 돈맥경화

최근 강원도가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조달한 2,050억원의 채무에 대한 지급 불이행을 발표하자 채권 시장에 '자금'이 마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어떻게 흘러왔나?

- 2011. 강원도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 계획 발표
- 2014. 부지에서 청동기 유물 발견돼 착공 지연
- 2020. 강원중도개발공사(GJC) BNK투자증권으로부터 2050억 대출 강원도가 지급 보증
- 2022. 9월 강원도 "GJC 회생신청, 강원도가 대신 빚 갚는 것 막겠다." 발표 후 채권 시장 경색
10월 5일 GJC의 2,050억원치 채권 부도 처리
10월 21일 강원도 "도 예산으로 2,050억원 상환할 것"
10월 23일 정부 "시장 안정화를 위해 50조 이상 투입"

레고랜드와 채권의 관계

강원도가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공사비 조달을 위해 2020년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를 세워 대출채권을 담보로 2,050억을 빌렸습니다. 아이원제일차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썼습니다. 9월 29일 대출 채권 만기일이 도래하자 강원도는 대출 지급 보증을 이행하는 대신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채권시장의 투자 분위기 급속으로 냉각

강원도의 발표로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레고랜드의 사업 주체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A1'에서 'D'로 일제히 낮추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방정부도 돈을 갚지 않겠다'는 데 시공사나 증권사는 어떻게 만나'라는 위기감이 퍼져나갔습니다. 강원도의 지급 보증 불이행 발표로 채권시장의 연쇄적인 자금경색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최상위 신용등급인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의 채권들마저 유찰되고 채권들의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채권시장에 불안이 확산되자 강원도는 보증

채무 2,050억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맥경화로 인한 기업 자금조달에 비상

레고랜드 프로젝트처럼 부동산 개발은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할 때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을 빌립니다. 이때 담보는 미래 수익성인데,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물가상승 영향으로 건설비까지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가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으로 신용경색까지 몰아친 상황입니다. 실제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둔촌주공아파트의 PF 차환 발행(발행한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것) 실패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5대 금융지주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정부: 총 50조+이상 규모의 대책 발표
 -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16조),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3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사업자 보증 지원(10조) 등
- 한국은행: 총 42조 5억 규모 유동성 우회 지원
 - RP 매입(6조), 담보증권 확대(29조), 담보 비율 인상 연기(7.5조)
- 5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 총 950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과 자금 지원
 -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73조), 채권시장 및 증권시장 안정 펀드 참여(12조), 지주 그룹 내 계열사 자금공급(10조)

강원도가 레고랜드 채무 2,050억원을 상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시장에 번진 우려가 잠재되지 않자 회사채와 단기 자금시장의 급격한 신용 경색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5대 금융지주가 나서 유동성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최근 금리인상 및 통화긴축 정책과 충돌하는 점이 있는 만큼 채권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정상궤도에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도서추천
영광도서
Since 1968

01 리더의 시, 리더의 격 고두현, 황태인 | 한국경제신문 | 19,000원

인생에서 한 번쯤은 점검해봐야 하는 격려, 역경, 치유, 고감, 성찰, 해학 등의 29가지 키워드를 모아 시인 저널리스트와 현직 경영자인 두 저자가 다른 시각으로 풀어낸 인문 경영 에세이이자 시를 통해 배우는 인생 수업이다. 시에 자기 계발적 요소를 결합해 비즈니스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경영자들과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져왔던 고두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수만 명의 구독자에게 전하고 있는 시를 엄선하여 그에 얽힌 스토리와 창의적인 단상들을 담아 이메일 편지로 풀어냈고, 수십 년 동안 여러 회사의 CEO를 역임하면서도 끊임없이 정진하는 경영자 모임을 이끌었던 황태인 토브넷 회장이 현업에서 배우고 깨달은 인생 성찰과 경영 노하우를 모아 화답하듯 이 시대 수많은 리더와 직장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다. 한 편의 시를 읽고 그 속에서 인생을 배우고, 해답을 찾아가는 두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일과 삶을 일깨우는 지혜와 덕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02 이윤의 역설 안 이크하르트 | 한국물가정보 | 17,800원

극소수의 '슈퍼스타' 기업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불평등을 감내하고 살아내야 하는 노동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희망은 과연 있는 것일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와 로봇, AI로 더욱 빨리 대체되는 시점에서, '슈퍼스타' 기업들은 노동법은 물론, 관리와 시간이 더 걸리는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함께 할 생각은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들 대형 기업들이 상품을 팔기 위한 소비 시장은 이들 절대다수 노동자의 소비 능력이 파급력을 일으킨다는 역설적인 현상이 이 책에서 탐구하는 핵심 주제이며 이렇게 노동자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잔인할 정도의 불평등이 누적되면, 앞으로의 제양은 역사적으로 겪었던 대공황이나 세계대전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책에는 우리의 일상까지 위협하는 초거대 공룡 기업들의 무자비한 가격 횡포와 스타트업의 짝까지도 밟아버리는 행동들 앞에서 노동자와 인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과 전문가적 영감이 담겨있다.



03 마스터피스 전략 김효근, 박정화, 전희재, 오은가람 | 가디언 | 25,000원



지금은 테슬라, 애플 같은 기업이 전기차를 만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다. 만약 현재 이들과 함께 피카소가 전기차를 만든다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 이미 세상은 소비자 만족을 넘어 소비자 감동의 시대이다. 미래의 소비자는 '미학적 경험을 추구하는 아트슈머(Artsumer)'이다. 그러므로 미래 경영은 '아트슈머를 어떻게 감동하게 할 것인가?'에 달렸다. 피카소가 상상하며 작품을 완성하듯 무한한 상상력을 넘어서 창작자의 예술혼, 즉 생산자의 정체성이 발현된 명작의 브랜드, 제품/서비스를 만난다면 소비자는 상상도 못 했던 신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아이폰과 테슬라를 뛰어넘을 진정한 명작, 탁월한 명품을 탄생시킬 본질적 원리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에서 우리는 경영과 예술의 기막힌 만남이 제시할 '미학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마주하게 된다.

04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3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 김영사 | 25,000원

첨단 무기를 앞세운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 세계적 에너지·식량 위기부터 기후 재앙까지. 위기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위기도 기회도 기술이 만든다. 매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메가트렌드를 전망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제시하는 《카이스트 미래전략》 시리즈. 2023년의 주제는 기술이 국제정치의 패권을 정한다는 '기정학'이다.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21세기 기술 패권 전쟁 현황부터 첨단 바이오, 6G, AI 반도체 등의 7가지 '게임 체인저' 기술, 기술 선도국이 되기 위한 100년 전략까지 한 권에 담았다. 또한 사회, 기술, 환경, 인구, 정치, 경제, 자원 7개 분야 STEPPER 키워드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넓고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지금이야말로 무분별한 기술 발전이 가져온 위기를 다시 기술로써 기회로 바꿀 때! 세계의 판도와 그 속의 기회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의 제언에 귀를 기울여보자.



05 트렌드 코리아 2023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이수진, 권정윤, 이준영, 이향은, 한다혜, 이혜원, 추예린 | 미래의 창 | 19,000원



세계화의 종말, 갈등과 분열, 그리고 전쟁. 평화와 공존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엄청난 위기감 속에서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한다. 자산시장 및 증시의 버블붕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제2의 외환위기 경고도 들려온다. 매우 부정적 전망이 압도하는 2023년을 앞에 두고 있는 지금, 소비 트렌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반복되고 달라질 것인가를 구별하는 작업일 것이다. 즉, '불황기의 소비 패턴'을 과거와 비교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비의 전형성'이 사라지는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른바 '평균 실종'이 첫 번째 키워드인 이유다.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2023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대선주조(주)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에게 ‘대선장학금’ 8,700만원 전달

대선주조(주)가 운영하는 대선공익재단은 10월 31일 부·울·경 지역 29개 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87명에게 ‘대선장학금’ 8,7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선장학금’은 2007년부터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예비 사회복지사 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대선공익재단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경성리츠
‘초록우산 산타 원정대 프로젝트’ 1호 산타 2,000만원 쾌척

(주)경성리츠는 11월 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제16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프로젝트’에서 1호 산타로 채창일 대표가 참여해 산타 선물금 2,000만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시행하는 나눔 캠페인이다. 채창일 대표는 “많은 시민과 기업이 참여해 아이들이 든든한 마음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성산업(주)
2022 부산 워라밸 페어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경성산업(주)은 11월 7일 ‘2022 부산 워라밸 페어’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 부문 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성산업은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정시퇴근, 유연근무제도 시행 등 워라밸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한 부분을 높이 평가받아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부문을 수상했다. 경성산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동원개발
통영시에 인재 육성기금 3억원 기탁

(주)동원개발은 11월 7일 통영시청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위해 인재 육성기금 3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통영 사람이 잘돼야 통영이 잘 되는 거다’라는 장복만 회장의 평소 지론에 따라 이번에도 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흔쾌히 기부금을 기탁했다. 장복만 회장은 고향을 향한 애정이 남달라 자수성가한 이후 매년 수천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금을 고향에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동원개발 관계자는 “동원개발 임직원 모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아플레이팅(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방문

동아플레이팅(주)은 11월 8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본사에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의 이번 방문은 동아플레이팅(주)의 생산관리 시스템 성과를 직접 확인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동아플레이팅(주)은 삼성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CSR 프로그램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수작업 공정을 자동화했으며 근무 환경도 개선하였다. 동아플레이팅(주) 이오선 대표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공장을 만들었더니 청년이 찾는 회사로 거듭났다”고 전했다.



세운철강(주)
신정택 회장 동아대에 발전기금 2억원 기부

세운철강(주)은 11월 10일 신정택 회장이 모교인 동아대학교에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신정택 회장은 2021년 6월에도 동아대학교에 발전기금 2억원을 기부하였으며 현재까지 12억원이 넘는 금액을 모교에 기부하였다. 신정택 회장은 “모교의 변함없는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부한다”며 “후배들이 학교의 교육혁신 정책에 따라 잘 적응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산해운항공(주)

양재생 회장 동아대학교에서 '21세기 기업의 미래 생존전략' 강연

은산해운항공(주)은 11월 11일 양재생 회장이 동아대학교에서 '해상과 항공 복합물류와 글로벌 물류 중심도시 부산,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강에서는 부산항의 위상과 계속해서 증가하는 항공 화물의 수요, 항구와 화물 공항 연계를 통한 물류 산업 시너지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특강 주제 외에도 양재생 회장은 본인의 초긍정의 경영 마인드인 '된다,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올드 캐슬' 출시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골든블루'를 직접 블렌딩한 50년 경력의 마스터 블렌더 '노먼 메디슨'의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정통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올드 캐슬'을 출시했다고 11월 11일 밝혔다. '올드 캐슬'은 우수한 품질의 위스키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위스키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BNK부산은행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주)BNK부산은행은 11월 14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BNK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BNK 사랑의 헌혈' 행사는 혈액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행사이다. 헌혈을 통해 모인 헌혈증은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주)BNK부산은행 관계자는 "BNK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대선조선(주)

한국해양대학교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대선조선(주)은 11월 17일 해양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해양대학교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우수 전문 인력 양성과 인력 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상호지원에 나설 것이며 또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대선조선(주) 관계자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실습부터 정규직원으로의 고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를 함께 구축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주)

'항공기 카펫이 옷으로' 업사이클링 제품 출시

에어부산(주)은 11월 18일 패션 디자이너 윤석운과 협업을 통해 폐기 예정인 항공기 카펫 원단을 활용하여 제작한 재킷과 모자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두 제품 모두 방염 기능을 지닌 특수 소재로 제작되어 오염과 이염에 강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디테일 포인트가 더해져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착한 소비를 확산할 수 있는 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출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운철강(주)

전남 광양에 신규 가공센터 건립

세운철강(주)은 11월 22일 광양 국가산업단지 내 명당2지구에서 전남 광양 가공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광양가공센터는 부산, 창원, 울산, 포항에 이어 5번째 가공센터이며 기존 4곳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부지 2만 4400평, 공장동 6047평, 사무동 362평에 이른다. 광양가공센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기가스틸 물량을 적극 소화하여 물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운철강 관계자는 "앞으로 연간 100만 톤의 포스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성장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슬기로운 회원생활

부산상공회의소 12월 각종 교육 안내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의 각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설명회 및 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FTA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일 시| 2022. 12. 14.(수) 10:00 ~ 16:30

|사업목적| ① 부산지역 수출기업 대상 인도네시아 시장 전반적인 상황 및 진출전략 전달
② 한-인도네시아 FTA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안내

|신청방법|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bcci.or.kr) 교육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12월 9일(금)

|수강방법| 사무실, 자택, PC(모바일폰)로 수강 가능

|참석대상| 부산지역 수출기업 관계자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0:00 ~ 12:30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최근 이슈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전략	방정환 코와트리 대표 ‘왜 세계는 인도네시아에 주목하는가?’저자
12:30 ~ 13:30	점심시간	
13:30 ~ 16:30	한-인도네시아 FTA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신청시 유의사항	백두합동관세사무소 이인희 관세사

|문의처|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 박윤철 과장(T.051-990-7016)



· 1차 · 실무경력자를 위한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

|일 시| 12. 9.(금) 09:30~13:30 (1일 4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손창용 세무사(세무법인 지율)

|수강료| 회원 44,000원, 비회원 88,000원

|내 용|

주 제	내 용
2022년 귀속과 달라진 주요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 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대여이익 근로소득 제외 기본공제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코로나19 관련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 사전준비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 준비서류 /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 의무자 / 연말정산 마무리 / 과다 소득공제에 따른 가산세
근로소득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종류, 수입시기 및 금액, 범위 등) 비과세근로소득(실비변상적인 급여, 식사대, 출산·보육수당 등) 유형별 근로소득 사례
연말정산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의 세액계산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보험료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율과 세액감면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그 밖의 세액공제)
서식작성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내용(근로자 인적사항, 급여내용, 가족사항, 지출비용) 항목별 공제 / 소득공제신고서의 작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 2차 · 실무경력자를 위한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

|일 시| 12. 15.(목) 09:30~13:30 (1일 4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최재윤 세무사(세무그룹 의정)

|수강료| 회원 44,000원, 비회원 88,000원

|내 용|

주 제	내 용
연말정산 사전준비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 마무리 연말정산 준비서류 연말정산 의무자 과다 소득공제에 따른 가산세
연말정산 개정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말정산 관련 올해 달라지는 내용 정리
근로소득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유형별 근로소득 사례 근로소득 주요 Check Point
연말정산 세액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의 세액계산 연금보험료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세율과 세액감면 주요 Check Point
서식작성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내용 항목별 공제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 경제인 과정 모집

*강의 내용

마인드 혁신과정

-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쉽
-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해질 비즈니스 능력
- CEO의 공감 소통과 자기표현
-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경영기술 배양과정

- 디지털 콘택트 시대 기업들의 비대면 경영전략
- 기업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다
-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와 위기경영
- 관점을 디자인하라
- 잘 만든 슬로건 하나가 기업을 먹여 살린다
- 혁명의 시대, 새로운 기업의 성장 비밀

경영전략 수립과정

-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 2023년 경제전망과 대응 방안
- 2023년 소비경제 트렌드 전망
- 최신 이슈와 비즈니스 기회 포착
-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적인 고객 경험 혁신 전략
- 혁신성장을 위한 ESG 경영 필수 전략

교양지식 배양과정

- 천만 영화로 살펴보는 소통과 공감
- 논어에게 길을 묻다
- 와인 특강
- 100세 인생, CEO의 건강관리

네트워크 형성과정

- 등산 및 골프대회
- 문화 체험활동
- 해외연수

특강

- 성공 CEO 및 명사 초청 특강



국내연수



동호회 활동



글로벌경제인 NEXT 포럼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경제인과정은 2011년부터 10여 년간 운영되어온 지역 최고의 CEO 양성과정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업인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경제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최신 트렌드를 담은 강연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기업인으로 구성된 530여 명의 원우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강사진

					
심리학	IT, 빅데이터	경영	경제	4차산업	트렌드
김경일	송길영	박용후	정철진	최재봉	전미영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피와이에이치 대표	경제평론가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원

*모집요강

모집인원	50명 내외
교육기간	2023년 3월 7일~11월 28일 ※ 상반기(3/7~6/27), 하반기(9/5~11/28)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19:00부터 2시간
교육대상	지역기업 CEO 및 임원,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2세 경영인,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및 전문직 종사자, 차세대 리더그룹
교육비	회원사 : 2,750,000(VAT포함) / 비회원사 : 3,850,000(VAT포함) ※ 원우회비 및 해외연수비 별도
입금계좌	부산은행 031-01-030154-3 (예금주 : 부산상공회의소) ※ 카드결제 가능 (방문 필)
모집일정	원서접수 : ~2023. 1. 31.(화) 수강등록 : 2023. 2. 13.(월)~2. 17.(금) 개강식 : 2023. 3. 7.(화)
신청방법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bcci.or.kr) 공지사항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dudrb@korcham.net) 제출 또는 우편 송부 [473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 9층 회원사업본부
신청서류	① 수강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증명사진 각 1부 ※ 대표자가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문의처 및 담당자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 박영규 과장대리(TEL. 051-990-7066)

부산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 안내

층수	면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월관리비(원)	비고
	임대	전용				
4층	60.0평 (198.0㎡)	36.0평 (118.8㎡)	78,000,000	780,000	1,560,000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별도

※ 문의 : 경영지원본부 남정호 과장대리 (051-990-7034)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 임대 안내

1F 대강당



좌석 수 : 360석(극장식)
면적 : 144평(476㎡)
현판규격 : 710cm×7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800,000원	냉·난방	140,000원

2F 상의홀



좌석 수 : 200석
면적 : 160평(528㎡)
현판규격 : 710cm×9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700,000원	냉·난방	140,000원

2F 국제회의장



좌석 수 : 100석
면적 : 99평(327㎡)
현판규격 : 500cm×8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8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80,000원
오후 14:00~18:00	35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20,000원
1일	500,000원	냉·난방	100,000원

2F 중회의실



좌석 수 : 70석
면적 : 57평(190㎡)
현판규격 : 500cm×8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2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70,000원
오후 14:00~18:00	28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00,000원
1일	400,000원	냉·난방	80,000원

회의실 사용료 할인안내

50% 할인
회원업체(당연)

20% 할인
회원업체(임의), 입주사, 3일(전일) 연속 사용업체

☎ 임대문의 : 경영지원본부 TEL 051.990.7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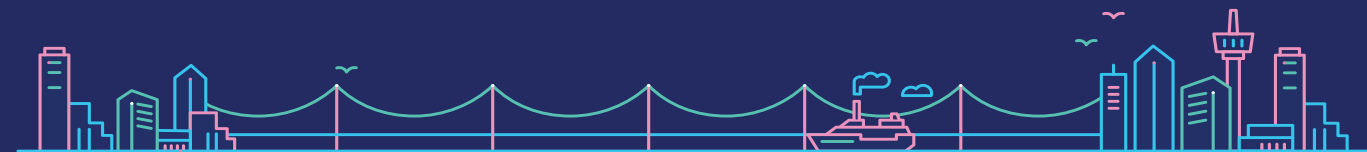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대한민국 첫번째 월드엑스포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상공회의소가 함께 뛰겠습니다!

2023년 12월 개최도시 결정



부산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사)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민무치위원회



최고기술을 보유한 금속표면전문기업



직접생산
직접시공



환경을 살리고
인간을 지키고
기술을 이끈다



(주) 천우테크

CHUNWOOTECH CO.,LTD.